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가스 직접 공급

Gazprom, Naftogas와 장기거래 합의 ... 약 550억 m³ 상당 가스 수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중간 판매상을 거치지 않는 직접 거래 방식의 장기 가스 거래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는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Gazprom과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Naftogas간에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거래량과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다.

매년 약 550억 m³ 상당의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현재 1000m³당 179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2009년에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Gazprom이 주식 50%를 소유하고 있는 중간판매상 러시아-우크라이나에너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제공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에너지는 다시 유럽과 우크라이나 국내로 보내는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구조가 가스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불투명한 거래를 조장한다면서 Gazprom과 Naftogas간 직접거래 방식을 원해 왔다.

또 직접 거래에서 Naftogas는 일방적으로 Gazprom 가스를 재수출하지 않기로 했으며 양측이 합의하에 유럽에 일정량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양사는 11월1일 공식 계약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10/24>